

十九畏에 관한 고찰

박필상¹, 강옥화¹, 이고훈¹, 박신영², 강석훈¹, 이승호¹, 최장기¹, 채희성¹, 권동렬¹
¹원광대학교 약학대학 한약학과, 본초학교실, ²국립수의과학검역원

ABSTRACT

A Study of "Nineteen Medicaments of Mutual Antagonism"

Pil-Sang Park¹, Ok-Hwa Kang¹, Go-Hoon Lee¹, Shin-Young Park², Suk-Hoon Kang¹,
Seung-Ho Lee¹, Jang-Gi Choi¹, Hee-Sung Chae¹, Dong-Yeul Kwon¹

¹Department of Oriental Pharmacy, College of Pharmacy, Wonkwang University

²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s

Nineteen Medicaments of Mutual Antagonism currently belong to pharmaceutical incompatibility and some of them cannot be used in a same prescription: if they are used in a prescription, the treatment effect is rather reduced or toxic response may be produced. Therefore, in this study, it was intended to look about how Nineteen Medicaments of Mutual Antagonism were defined through survey of literatures and to review the meaning and clinical potential.

According to "Sinnongbonchogyong," "Medicaments contain the substance that suppress toxins and the toxins may be removed with use of mutual restraint or mutual detoxication substances" and they have been used in terms of this concept. Since Tang and Song era, mutual restraint and mutual inhibition were confused and were difficult to be distinguished. In terms of pharmaceutical incompatibility, the original meaning of mutual restraint was deteriorated in

-
- 교신저자 : 권동렬
 -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약학대학 한약학과 본초학교실
 - Tel : 063-850-6802 E-mail : sssimi@wonkwang.ac.kr
 - 접수 : 2007/ 11/ 21 채택 : 2007/ 12/ 17

“Sinnongbonchogyong”. That is, mutual restraint has been used as the concept of mutual inhibition or incompatibility.

When various literatures were reviewed, it could be found that Nineteen Medicaments of Mutual Antagonism were firstly included in the phrases of songs and then in “seven emotion.” It could be supposed that Nineteen Medicaments of Mutual Antagonism was created based on the clinical experiences of the author and the influence of doctors. Such supposition means indicates that the interactions among medicaments could effectively be applied and mutual restraint did not belong to pharmaceutical incompatibility. However, many doctors used mutual restraint and mutual inhibition in clinical practice with no distinguishment since Song era and, especially, it is supposed that, when medicaments were used with mixing, the pharmaceutical incompatibility of “Nineteen Medicaments of Mutual Antagonism” or “Eighteen Incompatible Medicaments” were emphasized and influenced on the efficacy of pharmaceutical preparations or acted as an obstacle in treating diseases. That is, an error was transferred; mutual restraint and mutual inhibition were not distinguished and were discretionally added or deleted through common people or professionals with no specific verification.

The pharmaceutical preparations that belong to Nineteen Medicaments of Mutual Antagonism belong to pharmaceutical incompatibility but, when reviewed various literatures and clinical reports, they are not thought to be the ones that can never be used. Therefore,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and experimental research should be performed.

Key word : Nineteen Medicaments of Mutual Antagonism(十九畏)

I. 서 론

石十九畏는 현재 配合禁忌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어떤 藥物들은 동일처방으로 응용할 수 없으며 만일 동일한 처방으로 응용하면 오히려 치료효과를 감소시키거나 혹은 독성반응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¹⁾ 이러한 十九畏는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긴 역사 속에서 여러 醫家들의 경험과

연구에 의해 나온 결론인지, 아니면 한사람이 독창적으로 만들어 낸 것인지 아직까지도 확실히 밝혀진 것이 없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하여 十九畏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알아보고 그 의미와 임상가치를 되짚어 보고자 하였다.

II. 본 론

초기의 相畏 概念은 配合禁忌에 속하지 않고 炮製法則의 名詞였다. 《神農本草經·序例》에 의하면 “藥에는 毒이 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있으니 相畏·相殺 藥물을 사용하면 毒을 除去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지금까지도 이 관점으로 응용하고 있다. 唐·宋代 이후에는 “相畏”와 “相惡”는 혼동되어 분간이 어려웠다. 配合禁忌를 보면 《神農本草經》에는 相畏의 원래 뜻이 변질되어 있다. 예를 들면 《珍珠囊補遺藥性賦》에서는 “어떤 것이 나를 두려워하면 나는 반드시 싫어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역시 나를 두려워한다.”고 하였다. 곧 相畏와 相惡 및 相反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현재 文獻의 근거로 초보적인 考證을 하면 十九畏는 歌訣이 가장 처음 기록한 것이 明代의 劉純이 전한 《醫經小學》이다.

1. 十九畏의 起源

1) 宋나라 이전 起源說

十九畏는 宋나라 이전의 “相畏”를 藥物들을 實例로 종합하여 썼다는 설이다. 葛勝利는²⁾ 十九畏 歌訣은 宋나라 이전부터 내려오는 수많은 相畏藥物들 중에서 몸에 이롭고 해로운 것을 종합 판별하여 歌訣형식으로 현재까지 전해졌다고 보았다.

2) 宋나라와 《本草綱目》사이 起源說

高曉山등은³⁾ 十九畏의 “相畏”에 관한 의미는 七情의 “相畏”와 차이가 있으며 12세기 이후 《本草綱目》이 나오는 사이에 기원하였다고 보았다. 十九畏에 속한 藥物인 硫磺, 朴硝, 水銀, 狼毒, 巴豆, 犀角, 人蔘, 石脂등 8종은 《神農本草經》에서 처음 보이며, 牽牛子는 《名醫別錄》에 처음 보이고, 丁香, 牙硝, 鬱金등은 《藥性賦》에 처음 보이고, 密陀僧은 《新修本草》에 처음 보이고, 砒霜, 荊三稜은 《日華子本草》에 처음 보이고, 五靈脂는 《開寶本草》(974년)에 처음 보인다. 그러나 官桂, 川烏, 草烏 등에 대해서는 그 명칭이 《政和本草》에 기재되지 않았고, 北宋 말년에 지어진 《聖濟總錄》(1117년)에서 草烏, 南宋에 지어진

《普濟本事方》과 《惠民和劑局方》에서 川烏와 官桂의 명칭들이 비로소 처음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十九畏의 기원은 아무리 빨라야 南宋 혹은 金나라 중기 정도일 것이라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3) 《本草綱目》이후 起源說

常敏毅⁴⁾는 “從狼毒最忌密陀僧”의 “密陀僧”은 李時珍이 처음 사용한 단어이므로, 이로 미루어 十九畏歌訣은 《本草綱目》이 공개출판(1590년)된 후로 보았다. 그러나 《中藥藥性論》에서는⁵⁾ 密陀僧(혹은 蜜陀僧)은 《新修本草》에 처음 등장하는 약물이고,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와 《本草綱目》모두 기재되어 있으나 《中藥大辭典》에는 密과 蜜이 같이 쓰일 수 없는 글자이므로 密陀僧을 《本草綱目》이 처음 기재한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리고 高曉山은⁶⁾ 十九畏歌訣을 처음 기록한 의서는 《珍珠囊補遺藥性賦》로, 단지 이 책의 지어진 년대가 불분명할 뿐이지 원저자는 李東垣이라 하였다. 그러나 明清시기의 많은 의가들은 이것은 다른 醫家가 쓴 것이라 하였다. 예를 들어 李時珍은 이 책이 쓰여진 년대와 작자는 불분명하다고 하였지만, 분명한 것은 이 책이 《本草綱目》보다 먼저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가 현재 확실한 연대와 작자를 알 수 있는 十九畏歌訣은 明代의 劉純이 지은 《醫經小學》이며, 이것은 1388년에 지어졌고 《本草綱目》보다 먼저 지어졌다.

2. 十九畏와 藥物七情의 관계

七情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서적은 《神農本草經》이다. 그러나 그 해석은 비교적 간단하고 후에 《本草經集注》이후로 七情의 의미해석이 비교적 자세하고 구체적이었으며 다양한 면을 보인다. 七情중에서 單行, 相須, 相使 및 相反은 여러 醫家들이 비교적 통일된 인식을 보였지만 나머지 相畏, 相惡, 相殺 등은 많은 차이를 보였다. 《神農本草經》에서는 相惡와 相畏를 같이 “若有毒宜制,

可用相畏, 相殺者, 不爾勿合用也.”라고 하여 藥에는 毒이 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있으니 相畏·相殺 藥물을 사용하면 毒을 제거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本草經集注》에서는 半夏와 生薑을 예로 “半夏有毒, 用之必須生薑, 此時取其所畏, 以相制耳.”라고 하여 半夏의 毒은 반드시 生薑을 사용하여 억제하라고 하였다. 여기서 “相制”는 “相殺”의 뜻이다. 위에서 서술한 두 가지 예에서 相畏·相殺은 실질적으로는 같은 의미로 藥물을 배합하여 毒성을 억제해 주며 이를 통해 커다란 효능을 발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相惡”에 대해서는 《神農本草經》에서는 “相反”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本草經集注》에서는 “相惡者謂彼雖惡我, 我無忿心, 猶如牛黃惡龍骨, 而龍骨得牛黃更良, 此有以相制服故也.”라고 하여 이후로 역대 醫家들은 주로 藥물의 효능을 예로 “相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李時珍은 “相惡者, 奪我之能也.”라고 하였으며 《本草從新》과 《本草備要》에서도 같은 관점을 지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현대의 本草學 교재는 相惡을 두 藥物을 배합 하였을 때 한 藥물이 다른 하나의 藥물의 효능을 감소시키거나 없애는 작용을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宋나라 이전의 相畏의 개념과 相惡의 개념은 분명히 구분하여 사용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宋나라 이후의 醫書들은 다른 견해를 보인다. 《珍珠囊補遺藥性賦》에서 말하길 “彼所畏者, 我必惡之, 我所惡者, 彼必畏我.”라고 하였으며, 《本草蒙筌》에서는 “有相惡者, 彼有毒而我惡之也. 有相畏者, 我有能而彼畏之也. 此二者不得爲害, 蓋我雖惡彼, 彼無忿心, 彼之畏我, 我能制伏.”이라고 하여 “相畏”는 효능이 억제당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醫學正傳》에

서 말하길 “若夫彼畏我者, 我必惡之, 我所惡者, 彼必畏我, 蓋我能制其毒而不得自縱也...”라고 하여 相畏, 相惡을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보았다. 簫慶慈는 宋나라 이후의 “相畏”에 대한 의미 해석이 서로 다르다는 견해라고 보였으며 많은 본초서적이 相畏, 相惡에 대하여 일정하지 않게 기재하여 놓았다. 예를 들어 《藥鑿》, 《雷公炮製藥性解》 등에서는 “巴豆畏牽牛”라고 기재하여 놓았는데, 《本草綱目》과 《得配本草》 “巴豆惡牽牛”라고 기재하여 놓았으며 《本草蒙筌》은 또 다르게 “巴豆反牽牛”라고 기재하여 놓았다. 또 《藥鑿》에서 “犀角畏川草烏”라고 해 놓은 것이 《本草綱目》과 《得配本草》에서는 “犀角惡烏頭”라고 기재하여 놓았다. 《本草綱目》, 《本草從新》, 《得配本草》 등은 “人蔘畏五靈脂”와 “五靈脂惡人蔘”으로 기재하여 놓았다. 《本草從新》에서는 “肉桂忌石脂”라고 기재된 것이 《得配本草》에서는 “肉桂畏石脂”라고 기재하여 놓았다. 이러한 예들로 보아 《本草綱目》의 “相畏者受彼之制也”에는 2가지 의미가 존재하게 된다. 하나는 藥物의 毒성과 극성 혹은 부작용이 억제된다는 뜻이며, 또 다른 하나는 藥물의 효능이 억제된다는 뜻이다. 李時珍이 相畏, 相殺, 相惡 등에 대하여 “相惡者, 奪我之能也. 相畏者, 受彼之制也....相殺者制彼之毒也.”라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그가 《神農本草經》과 《本草經集注》에서 나온 相畏는 毒性을 억제한다는 것과 그 후에 나온 相畏는 效能을 억제한다는 관점 둘 다를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

3. 중국 역대 本草書籍의 十九畏에 관련한 기재

1) 魏晉南北朝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Table 1. 참조)

Table 1. 魏晉南北朝 醫書들의 “相畏” 기재표

書名	특징	기재내용
《本草經集注》	최초로 畏, 惡, 反, 忌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음	朴硝 畏麥句薑. 芒硝 石葦爲之使, 畏麥句薑. 赤石脂 惡大黃, 畏芫花. 黃石脂 曾青爲使, 惡細辛, 畏蜚蠊. 白石脂 燕糞爲使, 惡松脂, 畏黃芩. 水銀 畏慈石. 人參 茯苓爲使, 惡溲疏, 反藜蘆. 狼毒 大豆爲使, 惡麥句薑. 巴豆 芫花爲使, 惡藜蘆, 畏大黃, 黃連, 藜蘆, 殺斑蝥毒. 犀角 松脂爲使, 惡菴菌, 雷丸 占斯 解狼毒毒. 附子 地膽爲使, 惡蜈蚣, 畏防風, 甘草, 黃芪, 人參, 烏韭, 大豆, 烏頭, 烏喙 葬草爲使, 反半夏, 瓜蒌, 貝母, 白斂, 白芩, 惡藜蘆.
《肘後方》		기재 안 됨
《小品方》	南朝陳延. 원본은 유실되고 일본에 일부 殘卷이 남아있음	寒食大散難將息者, 由括蕞惡乾薑故也 茯苓惡白斂, 麻子惡茯苓, 乾薑惡黃連 十九畏의 기재는 안 보임

2) 隋·唐

隋·唐시기의 本草에 관한 서적은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이 많지 않으며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 당시의 대부분 자료는 《證類本草》에서 기재된 내용을 참고한 것이다(Table 2. 참조).

3) 宋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Table 3. 참조).

晉, 南北朝에서 宋나라 때까지 本草 및 方書에는 十九畏에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없었으며, 이러한 사실 미루어 宋나라를 포함하여 그 이전의 畏惡反忌에 대한 기재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十九畏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밖에 十九畏에 관련된 약물의 기재를 살펴보면 硫磺, 朴硝, 水銀, 狼毒, 巴豆, 犀角, 人參, 石脂, 砒毒 9종은 《神農本草經》 처음 보였고, 牽牛子是 《名醫別錄》에 처음 보였고, 丁香, 牙硝, 郁

金은 《藥性賦》에 처음 보였고, 密陀僧은 《新修本草》에 처음 보였고, 砒霜, 荊三稜 《日華子》에 처음 보였고, 五靈脂는 《開寶本草》에 보였고, 官桂는 《本草圖經》에 처음 보였고, 川烏, 草烏는 《政和本草》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聖惠方》에 川烏, 《聖濟總錄》에 草烏, 《本事方》, 《局方》에 川烏, 官桂등의 명칭이 보인다. 이상의 내용으로 十九畏에 대한 내용의 기원은 宋나라 이후라고 볼 수 있다.

4) 元, 明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Table 4. 참조)

劉純 (醫經小學의 저자 1388) 이전의 주요 本草, 醫書 들은 十九畏七情에 대한 기재가 없다. 《增廣和劑局方藥性總論》은 송나라 이전의 藥性에 관한 종합서이지만, 藥物의 畏, 惡, 反, 忌와 十九畏와는 전혀 같은 부분이 없었다. 이로서 十

九畏의 起源은 宋나라 이후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神農本草經》이나 《本草經集注》와는 거리가 있다. 이러한 점은 十八反과 다른 점이다.

5) 明, 淸

《醫經小學》에 十九畏의 歌訣이 출현한 이후

로 각 醫家들의 本草에 대하여 점차 十九畏 藥物 七情에 대한 기재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때는 주로 十九畏의 내용이 본초서적에 실려 있었다 (Table 5참조).

Table 2. 隋·唐 醫書들의 십구외와 관련된 기재표

書名	특징	기재내용
《藥性論》		人蔘 馬藪爲使, 惡鹵咸. 桂 *殺草木毒, 忌生葱. 白石脂 惡馬目毒公. 烏頭, 烏喙 遠志爲使, 忌歧汁
《唐本草》		
《本草拾遺》		水銀粉 畏磁石, 石黃, 忌一切血. 石硫黃 畏細辛, 蜚蠊, 鐵
《蜀本草》		白石脂 畏黃連, 甘草, 飛廉
《日華子本草》		五色石脂 畏黃芩, 大黃, 牽牛子 得青木香, 乾薑良. 砒霜 畏綠豆, 冷水, 醋.
《千金方》	畏惡등의 七情內容은 《本草經集注》에서 약간의 補充함	朴硝 畏麥句薑. 芒硝 石葦爲使, 惡麥句薑. 赤石脂 惡大黃, 畏芫花. 黃石脂 曾青爲使, 惡細辛, 畏蜚蠊, 扁青, 附子. 白石脂 燕糞爲使, 惡松脂, 畏黃芩. 水銀 畏磁石. 磁石 柴胡爲使, 畏黃石脂, 惡牡丹, 葬草, 方解石, 惡巴豆. 人蔘 茯苓爲使, 惡洩疏, 反藜蘆. 細辛 曾青, 棗根爲使, 惡狼毒, 山茱萸, 黃芪, 畏滑石, 硝石, 反藜蘆. 黃連 黃芩, 龍骨, 理石爲使, 惡菊花, 芫花, 玄蔘, 白鮮皮, 畏款冬, 勝烏頭, 解巴豆毒. 附子 地膽爲使, 惡蜈蚣, 畏防風, 甘草, 黃芪, 人蔘, 烏非, 大豆. 半夏 射乾爲使, 惡白莢, 畏雄黃, 生薑, 乾薑, 秦皮, 龜甲, 反烏頭. 狼毒 大豆爲使, 惡麥句薑. 占斯 解狼毒毒. 巴豆 芫花爲使, 惡藜草, 畏大黃, 黃連, 藜蘆, 殺斑蝥毒. 龍骨 得人蔘, 牛黃良, 畏石膏. 牛黃 人蔘爲使, 惡龍骨, 地黃, 龍膽, 蜚蠊, 畏牛膝. 犀角 松脂爲使, 惡菌, 雷丸. 斑蝥 馬刀爲使, 畏巴豆, 丹蔘, 空青, 惡膚青.
《外臺秘要》		내용 없음

Table 3. 宋 醫書들의 十九畏와 관련된 기재표

書名	특징	기재내용
《證類本草》	《本草經集注》에서 새로 추가된 내용은 없으며 부연설명만 추가됨	내용 없음
《本草衍義》		내용 없음
《醫心方》	일본의 丹波康 賴984년에 지어졌으며 비록 시기가 宋나라때 이지만 수록된 내용은 唐나라 이전의 자료가 많다. 그중에 七情에 관한 내용은 《本草經集注》와 《千金方》의 내용과 비슷하지만 거기에 보충한 것이 “今按”에 실려있다.	水銀 [今案] 《范汪方》殺銅金毒. 《藥辨訣》 畏玄石. 朴硝 [今案] 《千金方》惡麥句薑. 芒硝 [今案] 《藥訣》滑石爲之使. 《千金方》 惡曾青. 赤石脂 [今案] 《藥辨訣》畏黃芩, 反甘草. 白石脂 [今案] 《藥辨訣》惡柏脂. 巴豆 [今案] 《藥辨訣》得火良.

Table 4. 元·明 醫書들의 十九畏에 관련된 기재표

書名	기재내용
《藥類法相》, 《湯液本草》, 《本草衍義補遺》, 《本草發揮》, 《儒門事親》, 《世醫得效方》	내용없음

Table 5. 明·清 醫書들의 十九畏와 관련된 기재표

書名	특징	기재내용
《醫經小學》	단지 十九畏歌訣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에 대한 해석은 없다.	疏黃原是火中精, 朴硝一見便相爭. 水銀莫與砒霜見, 狼毒最怕密陀僧. 巴豆性烈最爲上, 偏興牽牛不順情. 丁香莫與鬱金見, 牙硝難合京三稜. 川烏草烏不順犀, 人蔘最怕五靈脂. 官桂善能調冷氣, 若逢石脂便相欺. 六凡修合看順逆, 炮燼炙炒莫相依.
《珍珠囊補遺藥性賦》	《醫經小學》보다 늦게 출판 됨.	내용 없음
《本草集要》	七情에 대한 기재만 있음(十九畏 설명 없음)	기본적으로 《醫經小學》의 十九畏와 같고 “人蔘又忌五靈脂”, “石脂相見便蹊蹺”부분만 다르다.
《本草品匯精要》		芒硝惡麥句薑, 硫磺, 畏京三稜, 石硫磺反朴消, 狼毒畏密陀僧.
《本草蒙筌》		人蔘畏五靈脂, 巴豆反牽牛
《醫學入門》		十九畏歌訣
《本草綱目》		人蔘畏五靈脂, 五靈脂惡人蔘, 狼毒畏密陀僧, 丁香畏鬱金, 巴豆惡牽牛, 水銀畏砒石, 五色石脂畏官桂, 桂畏石脂, 朴硝畏京三稜, 硫黃畏朴硝, 犀角惡烏頭, 附子畏犀角

중국의 南北朝시기부터 明清시기까지 本草文獻 자료를 종합하여 볼때 《醫經小學》은 十九畏의

최초로 기재되어 있는 책이며, 이 이후로 本草醫書에는 단지 歌訣만 실렸고, 七情의 畏惡反忌에

대해 쓸 때는 十九畏藥物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1388년에 《醫經小學》에 十九畏歌訣에 실린 이후로 117년 후 1505년 《本草品匯精要》에 單味藥조항에 十九畏와 유사한 藥物이 실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十九畏歌訣이 100년이 지나서야 여러 醫

家들에 의해 점차 인식되고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비로소 七情의 畏惡反忌에 포함되었던 것이다. 아래의 Table은 본격적으로 十九畏가 기재된 본초서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Table 6, 참조).

Table 6. 十九畏가 기재된 本草書 대조표

	《藥鑿》	《雷公炮炙藥性解》	《本草綱目》	《本草從新》	《得配本草》
硫磺, 朴硝		硫磺畏朴硝	硫磺畏朴硝		硫磺畏朴硝
水銀, 砒霜		水銀畏砒霜	水銀畏砒霜	水銀畏砒霜	水銀畏砒霜
狼毒, 密陀僧			狼毒畏密陀僧		狼毒畏密陀僧 密陀僧制狼毒
巴豆, 牽牛	牽牛畏巴豆	巴豆畏牽牛	巴豆畏牽牛		巴豆惡牽牛
丁香, 鬱金	丁香畏鬱金		丁香畏鬱金	丁香畏鬱金	丁香畏鬱金
牙硝, 京三稜	三稜畏牙硝		朴硝畏京三稜		朴硝畏三稜
川烏, 草烏, 犀角	犀角畏川草烏		犀角惡烏頭 附子畏犀角	附子畏犀角	附子, 側子畏犀角 犀角惡烏頭
人蔘, 五靈脂	人蔘畏五靈脂		人蔘畏五靈脂 五靈脂惡人蔘	人蔘畏五靈脂 五靈脂惡人蔘	人蔘畏五靈脂 五靈脂惡人蔘
官桂, 赤石脂	桂皮畏赤石脂		桂畏石脂	肉桂忌石脂	肉桂畏石脂

위의 Table에는 보는 바와 같이 十九畏 전부가 완벽하게 기록되어진 本草書는 없으며 같은 약이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4. 十九畏歌訣에 관한 고찰

1) 《醫經小學》 구성에 관한 고찰

이 책에는 비록 처음으로 十九畏歌訣에 대하여 기록하였지만, 저자인 劉純은 과연 민간에서 얻고 개인적인 임상경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책들을 참고하여 인용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劉純은 元나라 말기에서 明나라 초기까지 활동하였던 醫家로서, 《醫經小學》은 1388년에 지어졌으며 중국이 明나라로 국호를 바꾼 후에 최초의 醫書이다. 이 책의 많은 내용은 비록 다른 의서들을 참고한 것이지만 창조적인 면이 돋보인다. 예를

들어 책 중에 《東垣珍珠囊》을 참고하여 “藥性指掌”에 166개의 약을 소개하였는데, 거에는 “集次見東垣《珍珠囊》”이라 하여 李東垣의 책을 참고하였지만, 原文 그대로 옮기지는 않았다. 이렇듯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醫家들의 책이나 학설을 인용 할 때는 반드시 주석을 달았으며 原文 그대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뜻이 같으면 역시 주석을 달아 원문의 출처를 밝히고 있다. 序言에서 말하길 “每篇歌括有全出書者, 與篇首則云出某書, 余則皆純衍取諸經義而成, 亦于篇首云集次見某書諸篇, 庶可尋考.”라고 하여 劉純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책을 썼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에 등장하는 十九畏歌訣은 어떠한 주석도 달지 않았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十九畏歌訣은 저자 본인의 독창적인 견해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2) 劉純 醫學思想에 관한 고찰

劉純(약1304~1412)의 字는 宗厚이고 그의 아버지(劉熟淵)는 朱丹溪(養陰派의 창시자)의 제자이다. 아버지로부터 가업을 물려받았으며 朱丹溪한테도 의술을 전수받았다.⁷⁾ 《醫經小學》의 《自序》에서 말하길⁸⁾ “昔丹溪先生以醫名江東，家君親從之游，領其心受，純，生晚學陋，承親之訓有年矣，其于經論，習而玩之，頗嘗得其指歸，不自撰度，竊以先生之旨，輯其醫之可法，本諸經論之精微節目，更爲定次；歌語引例，具圖以便記習；至于脈訣之未備者，亦爲增正，名曰《醫經小學》。”라고 하였는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劉純이 朱丹溪의 의학사상을 잘 이어받았으며 《醫經小學》에 그의 사상이 기본적인 토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丹溪의 醫學이론은⁸⁾ 劉河間을 이어받아 李東垣과 張子和가 영향을 주었으나, 당시 널리 성행하던 《太平惠民和濟局方》의 이론과는 거리가 있었다. 丹溪는 평생 燥熱작용이 심한 약의 사용을 자제하였으며 金石類藥物의 毒性和 전해내려 오는 음식습관을 반대하였다. 예를 들어 丹溪는 “夫石藥又偏之甚者，自唐時太平日久，膏粱之家或于方士服食之長生之說，以石藥体厚氣厚，習以成俗，迨至宋至今犹未已也，斯民何辜？受此氣悍之禍而莫能救，哀哉！”라고 하여 香皂辛熱藥을 반대하였으며, 특히 《太平惠民和濟局方》의 약물사용 경향을 반대하였다. 《局方發揮》에서는 《內經》의 뜻을 좇아 “熱傷脾，常服燥熱，寧不傷脾乎？又曰，腎惡燥，多服燥藥，寧不傷腎乎？”라고 하여 丹溪가 가장 많이 사용한 약은 川芎이었으며, 또 말하기를 “久服致氣暴亡，以其味辛性溫也，辛甘發散之過歟，《局方》以沉，麝，檀，腦，丁，桂 諸香作湯，較之芎散之禍孰爲優劣？試思之。”라고 하였다. 중국에서 金石類의 藥物복용이 유행한 때는 晉唐시기이며, 宋元때 까지 널리 복용하였다. 이것은 당시의 일반 백성들의 건강에 커다란 지장을 주었으며, 宋나라때는 辛香溫燥한 藥物이 유행하였다. 十九畏에는 모두 19종의 藥物이 있는데 硫黃, 朴硝, 水銀, 砒霜, 密陀僧, 牙硝,

赤石脂등 7종의 金石類藥들은 唐宋때 널리 사용되던 약들이었다. 川烏, 草烏, 官桂, 丁香, 人蔘 등의 약재들은 溫補香燥한 것으로 《局方》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한 약물들이었으며 京三稜, 巴豆또한 常用하는 약재들이었다. 특히 巴豆는 宋元시대의 方書와 民間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던 약재이었다. 攻下하는 약물을 자주 사용하였던 張子和조차도 巴豆의 남용에대한 위험성을 경고하였는데, 그의 저서인 《儒門事親》에서 “奈何用人畏大黃而不畏巴豆，粗工喜巴豆而不喜大黃...豈知諸毒中，唯巴豆爲甚，故下藥以巴豆爲禁。”라고 하였다. 張子和는 비록 巴豆의 사용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牽牛는 사용하였다. 《儒門事親》에서는 牽牛로 食積, 酒積, 氣積 등을 치료하였으며, 문제가 생기면 牽牛와는 무관하게 보았으며 巴豆때문일 것이라 여겼다. 예를 들어 “人言此病，曾下奪之，從下奪來，轉虛轉痞，此爲巴豆，非大黃牽牛之過。”라 하였다. 그러나 李東垣은⁹⁾ “張仲景治七種濕證，小便不利，無一藥犯牽牛者，非不知牽牛能瀉濕利小便也，仲景尙不敢輕用，夫何世醫，不分血氣一概用之乎？”라고 하여 牽牛의 남용에 대해서도 비평을 하였다. 朱丹溪는 이러한 이론에 동의하여 《本草衍義補遺》에서 말하기를¹⁰⁾ “(牽牛)若非病形與證具實者，勿用也.”라고 하였다. 牽牛역시 十九畏중에 한 藥物이며 巴豆와 대응한다.

당시에 이러한 약들은 임상에서 많은 부작용을 낳았으며, 十九畏에 있는 약들은 하나의 방제에 자주 같이 출현하였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더불어 藥物간에 畏惡反忌는 자연적으로 발전하였고, 이와 함께 劉純이 丹溪의 사상을 계승하고 임상에서 얻은 경험을 종합하여 위의 金石辛燥한 藥物이 일으키는 부작용과 위험성을 연구하여 十九畏을 만들고 그것을 歌訣로 정리하였을 것이다. 劉純의 스승은 徐彥純이고 徐彥純은 朱丹溪의 제자이다. 그러나 徐彥純의 《本草發揮》중에는 十九畏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없다. 이로 미루어 藥物의 宜忌에 관한 思想은 아마도 朱丹溪에서 비롯되

었다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十九畏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도 劉純 본인의 경험이고 전승된 것이라 짐작된다. 그밖에 元나라 말기와 明나라 초기의 本草방면의 歌訣은 점차로 유행하기 시작하였으며 비교적 영향력이 있었던 가결은 元나라 胡士可의 《本草歌括》이었고, 十九畏에 관한 언

급은 없다. 이상의 내용으로 十九畏는 劉純본인이 창작하였다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다.

5. 현대의 실험연구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Table 7. 참조)

十九畏 藥物	실험연구
硫磺, 朴硝	동물실험에서通便작용과 진통작용 저하되었고, 소염작용이 저하되었으나 독작용이나 사망 없음. ¹¹⁾
水銀, 砒霜	두 가지를 섞었을 때 화학반응은 없었으나 두 약의 독성분은 그대로 존재하였으며 이로 미루어 독성이 훨씬 강할 것이라고 추측함. ¹²⁾
狼毒, 密陀僧	동물실험에서 백혈구 지수가 내려갔고, 소염 진통작용 및 흉선 비장지수가 하강하였으며 사망도 있었음. ¹³⁾
巴豆, 牽牛	동물 임상실험(말)에서 結症(腸閉塞)치료에 효과를 보였고 부작용이 없었다. ¹⁴⁾
丁香, 鬱金	虛寒性胃痛의 치료효과 ¹⁵⁾ , 신경성구토증 치료효과 ¹⁶⁾ , mouse실험에서 소화계통의 생리적인 활성을 감소시킴. ¹⁷⁾
牙硝, 京三稜	mouse실험에서 소염 진통작용이 저하되었고, 적혈구, 백혈구, 비장지수가 모두 저하됨. ¹⁸⁾
川烏, 草烏, 犀角	mouse실험에서 소염 진통작용이 저하됨 ¹⁹⁾
人蔘, 五靈脂	간암의 진통효과 ²⁰⁾ mouse실험결과 산소결핍과 피로에 높은 저항성을 보임. 간 손상에 대한 보호 작용을 함 ²¹⁾
官桂, 赤石脂	가축실험에서 지사 및 장염치료효과 ²²⁾

현대의 十九畏에 관한 실험연구는 크게 3가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첫째는 毒性 혹은 劣性反應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으로 약물간의 배합으로 치료효과를 감소시키는 것, 마지막으로 약물을 배합하여 그 독성을 억제함으로써 약효를 늘리는 것이다.

III. 결 론

이상의 여러 문헌을 통하여 고찰하여 본 결과 十九畏는 먼저 歌訣이 나왔고 그 다음에 七情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醫經小學》에 언급된 十九畏는 작자 본인의 임상경험

과 朱丹溪의 영향을 받아 창작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고전에서 기록된 “相畏”와 “相惡”의 의미는 임상에서 약물을 배합하여 사용할 때는 相畏를 사용하고 相惡의 사용을 멀리하라는 의미가 분명했다. 이것으로 약물간의 작용을 효과적으로 응용할 수 있었고 동시에 相畏는 配伍禁忌에 속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이러한 것이 唐宋이후에 여러 醫家들은 相畏와 相惡을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여 임상에서 사용하였고, 특히 약물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는 “十九畏”나 “十八反”등의 配伍禁忌가 강조되어 약물의 효능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거나 병을 치료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런 상황이 오게 된 원인은 이하 몇 가지 가능성을 들 수 있다. 하나는 잘못된 것이 잘못 외전되었고, 그 다음은 相畏와 相惡이 구분되어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특별한 검증 없이 민간이나 전문을 통해서 마음대로 첨가되거나 삭제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그 당시의 정보와 기술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이러한 상황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十九畏”는 그 起源뿐만 아니라 임상응용까지 수많은 논쟁이 있었다. 현재 이러한 약물들은 配伍禁忌에 해당하지만 여러 문헌들과 임상실험을 보았을 때 반드시 쓰일 수 없는 것은 아니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체계적인 문헌고찰과 실험연구를 통하여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十九畏”대한 논란을 잠재울 수가 있을 것이며 임상에서도 보다 커다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의 글

이 연구는 2007년도 원광대학교 교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므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참조문헌

1. 辛民毅. 臨床本草學. 永林社. 2005, p151
2. 高曉山. 中藥藥性論. 人民衛生出版社. 1992. p389
3. 高曉山. 遼寧中醫雜誌. 1981. 第3期. p43
4. 常敏毅. 中藥通報. 1986 中藥理論增刊 第1期. p207
5. 高曉山. 中藥藥性論. 人民衛生出版社. 1992. p389
6. 高曉山. 遼寧中醫雜誌. 1981. 第3期. p43
7. 劉時覺. 丹溪學研究. 中醫古籍出版社. 2004. p57-58
8. 劉純. 劉純醫學全集. 人民衛生出版社. 1986. p17
9. 陳嘉謨. 本草蒙筌. 人民衛生出版社. 1988. p163
10. 朱丹溪. 金元四大家醫學全書·本草衍義補遺. 天津科學技術出版社. 下冊. 1994.
11. 毛曉健. 雲南中醫學院學報. 1998. 第3期. p3
12. 毛曉健. 雲南中醫學院學報. 1997. 第3期. p1
13. 毛曉健. 雲南中醫學院學報. 1996. 第4期. p1
14. 郭顯格. 青海畜牧獸醫學院. 1994. 第1期. p35-36
15. 歐陽菊. 實用中醫藥雜誌. 2006. 第2期. p79
16. 楊文華. 實用中醫內科雜誌. 1987. 第2期. p90
17. 賈穎. 中華中醫藥雜誌. 2006. 第10期. p620-621
18. 毛小平. 雲南中醫學院學報. 1996. 第17卷. p30-35
19. 毛小平. 雲南中醫學院學報. 1998. 第21卷. p17-19
20. 黃曉翹. 實用中醫內科雜誌. 1994. 第3期. p12
21. 郭國華. 湖南中醫雜誌. 1994. 第2期. p76-77
22. 張國紅. 中獸醫醫藥雜誌. 1996. 第6期. p6-8